

【숙부를 함락시킬 때 까지-첫날밤 편】

#1 저녁, 소이치로네 집 거실.

맛있어? 하하, 다행이네.

일이 어느정도 정리되었다고 들어서, 힘 좀 썼어.

만들다 보니 꽤 많아져서, 과한가 싶어 걱정했지만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아아, 차 리필해줄게.

됐어, 됐다니까. 내가 가는게 더 빨라.

자, 여기 있습니다~.

후후...

아, 또 그랬나...

응, 아냐. 입맛이 없던가 그런 건 아니고 네가 열심히 먹는 모습이 좋아서.

이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눈을 반짝이면서도 정작 첫 입으로는 착실하게 국물부터 마시는 점이라던가, 작은 입으로 열심히 먹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해. 그게 설령 내 밥이라도 말이야. 뭔가 무척 기뻐서... 계속 보고 있었어. 남한테 그런 모습 보여지는 건, 역시 싫으려나?

그렇지만, 나는 생각보다 너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했던 탓인가? 내 생활 반경 안에 네가 있으니까 하나 하나가 다 기쁘게 느껴져.

아—TV를 보고 있네. 양치 하고 있구나. 이번에는 다다미의 모서리를 뚫어져라 보고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응. 아하하. 네에, 들뜬 상태입니다. 좋네, 신혼이고.

.....신혼인가~.

내, 내 입으로 말했지만 역시 이건 조금... 부끄럽네.

아~ 정말이지. 웃지 마.

나도 내가 이만큼 어린애처럼 들뜰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말이야.

아, 맞다. 밥 먹고 나면 식후 디저트도 있어.

.....응!? 너무 많이 먹이는 건가?! 그럴 리가.....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하고 올게.

도와주는 거야? 고마워.

그럼, 내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건네주면 닦아줄 수 있을까?

#2 저녁, 소이치로네 집 부엌.

내일만 가면 쉬는 날 이었던가?

응.

최근 계속 열심히 했으니까 말이지. 수고 많았어.

아, 그거. 유리 그릇, 무거울테니까 조심해. 응.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하하. 뭐랄까, 언제나 나한테 있어선 어린애처럼 느껴지니까. 그럴 리가 없는 데도 말이지.

어린 아이에게 하면 안 될 짓도 이미 많이 해 버렸고 말이야.

.....헤에. 이상한 말을 해 버렸네. 미야.....

위험해!

하아... 하... 위험했네...

괜찮아? 어디 다친데는 없어? 역시 유리는 무거웠구나. 젖어 있으니 미끄럽기도 했고 말이야.

그릇? 그거야 뭐... 괜찮아. 깨진 부분도 없는 데다가, 금이 가버렸으면 새로 사면 그만이니까.
그보다, 아픈 곳은 없어?

아— 손 놓을게. 파편이 툭까 멋대로 붙잡아 버렸네.

.....? 좀 더 이대로 있는게 좋아?

아, 으, 응. 알겠어.....

저기, 있지.

요즘... 이런 느낌으로 있질 못했지. 몸에 손을 댄다던가, 그... 야한 행동이나.

그러니까. 내일 밤... 피곤하거나 싫지만 앓다면.....

하고 싶어.

이번에는 마지막 까지.

응.

지금까지, 해본 적 없으니까.

몇 번이나 말 했었지만, 네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야. 그럴 일이 있을 리도 없고.

오히려 반대에 가깝지. 너는 작고 귀엽고,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좋아한다고 해 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해 버리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까 두려웠어.

응, 응. 무서웠거든.

아무리 피임을 잘 한다고 하던들, 여자한테 무리가 가는 건 변하지 않기도 하고... 내 행동 하나에 네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과한 걱정 이려나.

나한테는 그닥 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혼 하고 나서야 드디어 결심이 서게 됐네.

겁쟁이라 미안해.

그러니까... 그으, 저기. 어떻게, 할까.

...정말?

어, 오. 오늘—?

오늘은 안 됩니다만—?

아니, 안된다고 할 까. 내일 일도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 잠깐, 키스하려고 하지 마.

아니, 물론 키스 하고 싶지만... 지금 해버리면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내일—! 내일이야! 내일 하는 거야—!!

...얼굴 빨개? 으, 으응...

그, 그런 말을 해버리면... 너도 빨강거든?

응.

...접시, 치울까...

#3 저녁, 소이치로네 집 현관.

어서 와.

저녁은 준비 해뒀어.

아니면 목욕 먼저 하고 올까? 물 데워올게. 나는 아까 들어갔다 와서 청소 해 뒀으니까 깨끗할거야.

.....왜 웃고 있는거야?

아~ 확실히 있지. 밥 먼저, 목욕 먼저? 하는 그거.....

그것도 아니면... 나? 라던가 말이지~ 아하하.

아, 나?

즉답이었네.....

그래도, 밥도 제대로 먹고 목욕도 해야지.

알았지?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있잖아.

오늘,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 했어? 집에 돌아오면 나한테 안겨지니까, 안절부절 못하거나 멍하니 있었을까 싶어서.

그렇구나.

나도, 계속 네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기뻐.

아, 부끄러워 한다.

.....응. 후후.

먼저 밥으로 할까.

같이 먹고, 조금 쉬었다가 여유롭게 목욕하고—

그리고 나면, 침실로 갈까.

#4 저녁, 소이치로네 집 침실.

우왓. 뭐, 뭐야. 네가. 아냐. 응. 조금 놀랐을 뿐이야.

목욕 하고 나왔구나. 머리는 제대로 말렸어?

가끔 귀찮다고 덜 말린 채로 왔을 때도 있었잖아. 감기 걸린다니까.

봐 줄테니까 이리 와. 이미 이불은 깔아 댔어.

웃차. 여기 앉아봐. 만질게?

찰랑거리네. 머리에 바르는 거... 헤어 밀크였지? 새로 바꿨잖아. 이전에 쓰던 것도 좋았는데, 달달하고 좋네.

어느쪽이 좋냐니...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쓴다는 뜻이야?

으응.....♡

이런 건 써 본적도 없고... 젊은애들 유행은, 참 알 수가 없네. 그래도 괜찮아? 그렇구나.

아저씨, 책임이 막중하네. 으음... 둘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아하하, 들켰나? 응. 정말... 모르겠어. 네가 쓰는 거라면 뭐든 좋은 걸로 보이는 걸.
제대로 코 꺾인 것 같네.

응...

응. 맞아. 머리를 쓰다듬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네가 아직 조그만 어린애였을 때는, 이렇게 자주 쓰다듬어 줬었지.

지금에서야 말 하는데, 처음에는 힘 조절을 하기 어려워서 무서웠어.

작은 몸으로 발 근처에 살금살금 다가와 붙어있고, 조금이라도 신경쓰지 않으면 발로 차버릴 것 같아서 초조했었어.

그런데, 어느샌가 이렇게 성숙한 여자가 되어서...

뭐, 뭐가... 그, 이것저것... 여러가지 생각해 봤거든. 피로감을 풀게끔 아로마 향을 피워볼까... 멋있고 상냥하게 리드해야겠지... 라던가...

아, 안돼. 무리야. 심장이 두근거리어서 그런 걸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 않아... 어른인데도 한심하네.

응?

그렇지. 엄청 두근거리고 있어. 진짜라니까.

너한테는 여유로운 연상의 남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필사적인걸.

여기, 느껴볼래? 손, 이리줘.

이것 봐. 엄청 뛰고 있지?

... 저기, 있잖아.

키스, 하고 싶어. 해도 돼?

고마워.

후우...

입, 벌려볼래? 응. 착한 아이네.

하아...

키스, 능숙해졌네.

처음 했을 때는 입술만 붙였는데도 그래도 얼어붙었었는데... 혀를 넣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건 그거대로 귀여웠지만.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후후.

있지. 이번에는 이쪽에 키스 해줘.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알려줄 수 있으려나.

아하하...

응, 잘 했어. 잘 했어.....♡

조금 버거우려나? 천천히, 숨 쉴까.

습— 하.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조금 멍해져있네. 귀여워.....

웃, 벗길게.

흡진 않아?

다행이다. 추워지면 바로 말해줘.

간지러워? 후후. 미안. 너무 예뻐서 그만.

아냐,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네가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걸.

...속옷도, 벗길게.

응—? 이, 익숙해졌으려나...?

그거야... 대부분은 경험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아, 빠졌다.

빠져도 귀엽기만 한데.

그래도, 역으로 생각하면 나라도 그럴겠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나잇값도 못하고 질투해버릴 것 같아.

웃지 마.

이렇게 한심한 남자로 만들어버린 건 다름아닌 너니까.

가슴, 만질게.

...엄청 두근거리고 있어. 부드럽네...

허리 부근이 간지러워? 몸을 조금씩 비틀고 있네.

...으, 응. 맞아. 가슴 좋아해. 들켜버린 건가... 조금 부끄럽네...

자... 자위... 여자애가 그런 말 함부러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그... 혼자 할 때는 얼굴이나 가슴을 생각하긴 했지만...

으, 응...

내 쪽은 괜찮아.

히죽히죽 안 웃었어. 이긴 기분도 내지 않아.

원하는 만큼 만져도 된다니, 그...

하아... 알았어. 그럼,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천천히 들어올리듯 만지거나 하면...

아아... 손가락에 말랑한 감각이 느껴져. 만지고만 있는데도 기분이 좋네.

있지... 손가락 끝 부분으로 살살 문지르면... 간지러워?

그것 뿐만은 아닌가 보네... 여기, 조금씩 움찔거리고 있네.

넣어줬으면 좋겠어?

안—돼. 갑자기 넣어 버리면 아프잖아.

전신이 오싹거릴 정도로 한계에 달했을 때 넣는게 좀 더 기분 좋으니까.

하... 계속 만질 수 있을거 같아...

여기 근처 부분은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느낌으로 쓸어내리는 거.

좋아하는 구나.

알고 있어.

봐, 살살 문지르면... 후후. 숨이 거칠어졌어.

끝 부분. 만져줬으면 좋겠어? 달아오르고 있네...

만져줄까, 이걸 어떻게 할까.

후후... 이제 한계려나?

그렇구나. 애원하는게 능숙하네...♡

그럼, 처음이니까 손가락 끝으로만 만질게.

봐. 내 손가락이 네 여기... 민감한 부분에 닿아 있는 걸...

하하, 빨리 쳐다보고 있네...♡

네에, 쭈욱—...♡

목소리, 조금 새어 나왔네.

만져지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지.

여기,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우물쭈물 거리면서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럽게 살살, 문지르는 거. 좋아?

좋아하는 거 같네. 기뻐.

내 손가락은 꽤 굵으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가볍게 눌러버릴 것 같아.

네 모든 부분이 작은 타인걸까...

아. 움찔거린다. 눌러지는 거, 좋아하는 구나.

여기, 완전 빨갱게 물들었어.

몸은 딱딱따끈 달아 올랐네.

조금 더 강하게 만져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천천히 주무르는 건?

후후, 기분 좋네.

목소리. 참으려고 하는데도 새어나가고 있어.

부끄러워? 귀여운데도...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뒤 힘줄이라 하는게 좋으려나.

여기,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민감하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면

응, 응.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가 튀어 나오잖아.

우후후...

...—쪽.

가슴, 핏고 싶어.

응...

하하. 등 뒤가 조금 젖어버렸네. 좀 더 말해줘, 라고 하는 것만 같아.

비어있는 쪽도 손으로 만져 줄테니까.

아아... 미안해?

이쪽도 원하는구나.

아... 머리, 쓰다듬어주는 거야?

기, 기쁘긴 하지만...

아기가 된 것 같아졌으니까. 그, 그 정도로 필사적이었나...

아니, 필사적일 수 밖에 없지.

좋아하는 사람의 가슴이 눈 앞에 있으니까 말이야.

...피부, 달아오르고 있어.

기분 좋아지고 있는 걸까.

다행이다...

...있지, 아래. 만져도 돼?

응.

다리, 벌려줘.

아... 지금, 질척거리는 소리 들었어?

키스랑 가슴밖에 안 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젖다니...

왜 고개를 피하는 거야? 부끄러워?

귀여운데. 얼굴 보여줘.

난 오히려 기쁜걸. 몸도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응... 허벅지 부드럽네.

허벅지 안쪽,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 소름 돋으려나?

잠깐, 몸 비틀지 말고 다리는 제대로 벌려야지.

아. 장난 아니네. 알고 있어? 애액이 흐르고 있어... 봐, 여기.

내가 손가락으로 따라 훑고 있는 여기까지 젖어버렸네.

아아. 애타게 만드려던 건 아니야.

후후... 미안. 기다리기 힘들구나.

우와... 장난 아니네.

뜨겁고 미끈미끈거려.

입구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으면 딱 달라붙어서...

아직은 안 할거지만, 뭐랄까. 흘린 것처럼 넣고 싶어 지네...

응. 아직 안 넣을거야.

처음이잖아. 제대로 준비하고, 기분 좋아져서, 흐물흐물 해진 뒤에 넣어줄게.

아... 여기?

여기 굳어있는 이 부분 말이야.

조금 손가락으로 쓸었더니 툭 튀어나왔네.

질척거리는 부분이니까 손가락 끝으로 살살 쓰다듬어서...

응, 응...♡

여자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이구나.

천천히 쓰다듬어 줄 테니까 마음껏 기분 좋아해도 돼.

너는... 혼자서 할 때도, 여기 만지는 거. 좋아하지?

응, 후후. 알고 있어.

전에 내 앞에서 할 때도 했었잖아. 잊지 않았으니까.

잊을 수 있을 리도 없고.

귀여웠지....

내가 보고 있는데도, 기분이 좋아서 손가락을 멈추지도 않고...

얼굴은 새빨갭게 달아 오르고, 떨면서 가 버리고...

괜찮아.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야.

기분 좋아지는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있지, 그러니까 좀 더 얼굴 보여줘.

기분 좋아서 흐트러진 얼굴...

아하... 흐를 만큼 넘쳤네.

내 손가락은 이미 끈적거리고 말이야.

여기, 약한 곳. 쓰다듬어주는 거, 기분 좋네.

이렇게 천천히... 단순히 문지르기만 해도 이제 녹아버릴 것 같고.

내 손가락이라서?

아하하... 그런 말을 해 주다니...♡

엄청 딱딱해졌어.

여자아이도 여기서 발기하는 걸까.

이렇게 작은데도 열심히 자기주장 하고 있네.

대단해, 대단해...♡

쓰다듬는 것 말고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고... 툭, 툭. 두드리는 것도 기분 좋으려나.

허리가 엄청 비틀리고 있어... 혹시 아팠어?

...그, 그렇구나. 다행이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두려워서 도망핀 거구나.

괜찮아.

아무리 도망친다고 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기분 좋은 거. 계속 줄 테니까.

아...

이번엔 허리가 들썩이네.

갈 거 같아?

가 버릴까...♡

응. 절정 해버리고, 그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만져줄게.

아, 후후... 으응, 응...♡

귀여워, 정말... 아...♡

...갔어?

아하... 엄청나네.

가볍게 손가락만 올려놨는데, 벌벌 떨면서 내 손에 들어오고 있어.

응. 머리랑 허리 살짝 멍 하지.

제대로 가 버렸구나...♡

머리카락, 땀 때문에 달라붙어 있어. 지금 떼 줄게...

여기... 부드러워지고 있어. 조금 더 익숙해지면 괜찮으려나.

하지만, 손가락으로 계속 문지르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다음엔 입으로 할까.

응?

더럽지 않아.

네 몸에 더럽다고 할 부분이 있을 리 없잖아.

이봐, 다리 오므리지 마.

무릎, 열어 젖힐게.

우와... 잠깐만.

젖어서 반짝거려.

아... 지금 조금 미끌거린다. 살짝 차가운데, 추운걸까.

아하하, 미안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역시 부끄럽지.

...아직 가 버린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여기 민감해졌으니까.

이렇게, 허를 붙여서... 천천히 위 아래로만 훑을게.

아—... 으응.

아프진 않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후후... 너는, 이렇게... 하아. 으음, 응.....

위에서 꾸욱— 눌러지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 딱딱해진 부분.

입술로 감싸서 부드럽게 빨아주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아하... 안에서부터 점점 흘러 나오고 있어. 우와, 너를 맛보고 있어...♡

시트를 째 쥐고 있네.

어디에 힘을 실어야할 지 모르겠어?

모르는 건가...♡

그럼, 손 잡자.

자, 쥐고 있던 손. 허리 근처로 내려둬.

...잡았다♡

손가락도 엮여있어. 봐, 연인 손각지...♡

기분 좋아진다고 느껴지면, 손을 꼭 잡아줘.

아무리 강하게 잡아도, 손톱을 세워도 괜찮으니까.

알았지?

그럼, 다시 핏을게—...

아...♡ 움찔움찔. 멈출 수가 없네, 으응. 가버릴 것 같은데...♡ 가버려♡

귀여워, 꼬옥— 잡고 있어...♡

하, 읊, 으응...♡

...웃♡

아...♡ 아하, 가버렸네...♡

...하하, 나랑 손을 잡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구나. 으음. 응...

응—응♡

아직 핏고 있어...♡

으응, 응... 읊. 이거, 제일 힘 줘서 잡고 있는 거야...?♡

아하, 응응♡ 기분 좋네—...♡

여기, 녹아버릴 것 같아...♡

하아, 하...♡

으음, 응...

아...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 귀엽네...

괜찮아? 입 달싹이고 있는데.

나, 나 때문이야?

그...런가. 그럴지도.

뭔가, 네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되어버린 거라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무척 복잡해져서...

가버린 걸 알고 있지만, 멈출 수 없었어.

이런 밝히는 남자는 싫으려나.

후후... 그렇네. 너는 매번 그렇게 말 해주니까.

미안, 알면서 물어봤어.

있지, 아래. 이제 흐물흐물해졌네.

손가락, 제대로 젖어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갈라진 부분, 촉촉해서 만지고 있었더니 빨려들어갈 것 같아.

봐, 똑— 하고...

아...♡

우와... 엄청나. 물살처럼 밀려오고 있어.

푹신푹신했던 것 같으면서도 손가락을 짹 조이고 있어...♡

스스로도 알고 있는거야?

후후. 그렇지, 모르겠지...♡

손가락, 거친가?

그런가... 평범한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안은 엄청 부드러우니까, 평범한 남자 손가락이어도 두껍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네.

어, 그래? 내 손이 거친 편이야?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손 크기라도 비교해볼까♡

손가락, 움직일게.

배 부분으로 미끄러지듯... 문지르는 것처럼...

응, 천천히, 천천히 움직일테니까.

으응...♡

안쪽이 기분 좋은것도 어느정도 알게 됐구나.

내가 가르친 것들, 몸으로 제대로 기억해 줘서 기뻐...♡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 마다 배가 움찔움찔거려.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응—... 여기? 아니면, 여기... 인가.

아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네.

몸 안, 이상해졌지—...

평소보다 기분 좋고, 뜨거워서 감각도 예민해졌고.

후후. 눈이 깜박거리고 있어. 귀여워...

잔뜩 쓰다듬은 보람이 있네에.

츄—... 으응.

귀도 귀여워.

항상 귀를 핥으면 헤롱헤롱거리잖아.

배 안이 엉망이 되니까 느낌이 이상하지.

귀도 핥아지면 힘이 빠질테니까, 더 기분 좋아질거야.

후후... 안, 조금 더 조여졌네. 기대했구나.

그럼, 해줄까...♡

하앗—...♡ 핫...—♡ 후우...—♡

아♡ 안쪽, 점점 여러번 떨고 있어...♡

이제 곧 갈 것 같네...♡

천—천히 쓰다듬고 있으니까.

자극에 약하니까, 분명 서서히 몰아붙여져서 가 버리려나...♡

하핫♡ 큐웅— 했어. 상상했구나...♡

응♡ 기분 좋네~... 안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

가고 있는데 툭툭 건드려지니까 움찔거리는데 멈추질 않네...♡

하하, 귀여워.

음, 으음. 츄...♡

진짜 귀엽네에, 정말이지...♡

우후후... 톱, 츄우...

손가락, 우선 빨게.

넣어줘... 라니, 아. 빼고 싶지 않았구나.

괜찮아, 다음엔 두 개로 넣어 줄게.

아니야?

이제 손가락 말고 다른 거, 라니?

안—돼.

말 했잖아? 처음이니까 충분히 익숙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쳐다봐도 안 돼요.

이것 봐. 이번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간다~.

아... 아하하. 저항도 없이 쓱 들어갔어...

다음으로는 안쪽에서 기분 좋게 해볼까.

응, 자궁 입구...

아아, 벌써 막혔네.

너는 체구가 작으니까, 뒤에 막힌 부분까지 바로 부딪히게 되네.

손 끝이, 톱, 톱. 부딪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려나.

하하...♡

대단해, 쪽쪽 빨아들이고 있어...♡

있지, 이제 넣어줬으면 하지.

...나도, 빨리 안에 넣고 싶어...

한 시간 정도, 더 익숙해져야 할 지도 모르지만...

무리야?

그렇구나, 무리구나아...♡

그럼, 한 번만 더 가면 넣는걸로 할까.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구나...♡

그럼, 자기 스스로 만져볼까.

나는 이렇게... 안에서 찌걱거리고 있을테니까, 너는 밖에서 기분 좋은 곳을 살살 만지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아, 이젠 알아서 손을 뺀고 있네...♡

후후, 장하다...♡

그렇구나. 직접 그렇게 만지는 게 기분 좋구나.

증지랑 약지로 꾸욱~하고.

아...♡ 그렇게 짓누르면, 아프지 않아? 괜찮아?

자극이 강하니까 기분 좋나봐. 안쪽이 엄청 울컥거리면서 움직여.

기뻐하는게 제대로 보이고 있어.

아하... 한 눈 팔지 못하게 나도 안에서 기분 좋게 해 줘야겠네.

어때, 이제 알겠어...? 여기가 네 가장 깊은 안쪽이야...♡

여기,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면, 자...♡

하핫...♡ 깊은 곳에서부터 귀여운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네...♡

후후...♡

갈래?

갈까...♡

가는 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네...♡ 아까 전부터 계속 가고 있었잖아.

몸은 이미 달아올랐고, 머리 속도 엉망진창이라 이제 손가락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밖에 생각 못 하게 됐구나...♡

하—...♡ 있지, 키스하자. 키스하고 싶어...♡

후...웃♡ 응, 으응~...♡ 가, 가버려♡

...진정했어?

응, 힘냈네. 힘냈어...♡

잘했어, 잘했어...♡

아아... 봐봐, 손가락에 하얀 실이 달라붙어서 끈적거리고 있어.

진심으로 느꼈다는 증거야...♡

앗?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 그거야. 당연히 서있지.

그치만... 너무 그렇게 빠히 바라보지 마.

뭔가... 나도 조금 놀랄 정도로 뺨뺨하게 서버렸네.

이미 나이도 들었는데, 배에 닿을 정도로 서버리고...

만진 적도 없고, 전희만으로 흥분한 게 들킨 건 조금 부끄럽네.

아... 이봐, 건드리지 마.

마, 만지고 싶어? 으음... 딱히 재밌는 일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자.

응... 아, 손 뺐어.

생각보다 따뜻해서 놀랐구나.

그거야, 당연히 흥분 했으니까 여기도 달아오르는 거야.

...부끄러워...

으음... 응, 거기... 그렇게 괴롭히면, ...으웃. 기분, 좋긴 하지만, 있지... 왜 조금 즐거워하고 있는 걸까...?

...어!? 활았어!?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활았다고 똑같이 한다니... 그거랑 이건 별개잖아.

아,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거야.

남자 자지를 핏게 하다니... 그런 짓을 너한테 시킬 리 없잖아.

...으응—... 그정도로...?

깨끗하게 씻긴 했지만, 이미 이런 상황이니까 분명 이상한 맛 날거고?

보, 복수하고 싶다고?

음, 확실히..... 내가 너무 괴롭혔을 지도..... 그래서,

.....미안해.

알았어, 조금만이야.

자, 잘부탁해...?

응. 이를 세우지 않으면 딱히 아프진 않아.

억지로 다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무리하지 마.

애초에 다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목에 부담이 가니까...

후...

으응, 거기. 끝 부분만 입에 넣고... 웃, 거기, 그, 그 뒤쪽은 민감, 한 부분...

언제든, 지, 뱉어버려도 되니까.

입, 작으니까, 뭔가... 가득 차있는 느낌이라, 엄청나.

어, 어휘력이 웃. 낮아지고 있다고?

아, 아니야, 이 상황에서...

하, 웃. 저기, 구석에서부터 핏지 마...

...~~웃! 역시 안돼!

하—아... 하아—...

아, 아니.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야 하나.

그대로 싸버릴 것 같아서...

정말이지, 웃지 말라니까.

좋아하는 아이한테 그런 짓을 당해놓고도 참을 수 있는 남자는 없을거야.

네가 입으로 해 주는 건... 서로 조금 더 익숙해진 뒤에 하자, 응?

물론 싫어졌다면 안 해도 되고.

응응... 약점 잡힌 느낌인데, 재밌었어?

그, 그렇구나.

하지만, 오늘은 네 안이 좋은걸.

입 안쪽보다는... 여기.

아아... 전혀 마르지 않았어. 아직 충분히 젖어있네.

입으로 하면서도 젖었구나. 기뻐.

너랑... 이어지고 싶어. 끝까지.

괜찮, 을까.

콘돔 끼울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응? 응. 끼우지.

끼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괜찮지만...

이렇게 꺼내서, 씹우고 빙 돌려서—

아하하... 콘돔 끼우고 있을 때 남자들은 좀, 한심하지 않아? 등도 굽어져있고...

그렇지 않다고?

...고마워.

소우짱은 언제나 멋있다니.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말하네...

변함 없구나. 어릴적부터, 줄곧... 그렇게 올곧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은.

영차,

...무서워?

만약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그대로 빼거나, 나를 굶거나 때려도 돼.

때리지 않을거라고? 과연 그럴까...

아...♡

끝부분이 들어간 거 같아.

...천천히, 천천히 들어갈 테니까. 응...

아...앗, 후. 하, 아... 쪽...

우...앗, 절반 정도, 들어왔네...♡

꽤, 괜찮아? 아프지는, 않아...?

으, 응...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

이대로, 안쪽까지 쭉욱 들어갈 수 있겠지...♡

하... 하아—. 조, 금씩, 천천, 히...♡

아...♡

전부, 들어갔다...♡

하, 웃. 엄청 나네, 이거. 좁고, 미끌거려서, 전신이 휘감기는 느낌이야...♡

아프지는... 앓은, 거지.

다행이다...

무거운데, 뜨겁기도 하고, 압박되지...

응... 그렇지.

익숙해질 때 까지, 잠시 이대로 있을까...♡

...지금 엄청 예뻐.

머리부터 발 끝까지 열게 붉어진데다가, 땀도 흘렸는데.

계속 보고싶어 져.

이 어깨도, 작은 손도. 만지면 파르르 떨리는 배까지... 전부 사랑스러워...♡

여기...

아래, 내 자지가 그대로 물려져 있네.

이렇게 작은 몸으로도 제대로 물고 있어주는구나...

...들어간 채로, 위에서 쓰다듬으면 긴장돼?

알고있어. 안이 진동하면서 그 뒤로 부드러워졌어...

내 형태에 맞춰지고 있는 걸까.

내가 몸을 쓰다듬는 걸, 좋아하는구나.

기뻐...

머리도 쓰다듬어 줄게.

착하다, 착하다. 후후...♡

...젖꼭지, 단단해졌네.

흥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귀여워—...♡

...웃, 안. 어리광 부리듯이 미끌거리기 시작했어...♡

조금 풀린걸까.

이렇게...

툭, 툭. 가볍게 흔들리듯이 움직이는 건, 어떠려나...?♡

그렇구나...♡ 기분 좋구나...♡

손, 잡자...♡ 응♡ 너랑 이렇게 손 잡고 있는게 좋아♡ 조그만한 손이 내 손을 열심히 잡고 있으니까, 귀엽고, 간질간질 거리면서 두근두근거리려...♡

응?♡ 응—♡ 안, 기분 좋지...♡ 확실히 아까보다 더 진동하고 있어♡ 가벼운 움직임인데도 제대로 느껴지는구나...♡ 봐, 안쪽. 툭, 툭...♡

아, 이거. 나도 위험한데...♡

아. 미, 미안...♡ 꼭 붙어있는게 좋아서 체중이 싹뻗을지도...♡

미안해♡ 무겁지는 않았어...?♡

그, 그래도... 끌어안고 싶어, 미안해. 으스러트리진 않을테니까...♡

허리, 움직일게...♡ 아, 웃. 후—♡ 하아...♡

좋아해...♡ 전부 좋아해, 귀여워, 사랑해...♡

있지, 눈치 챘어...? 점점, 속도 빨라지고 있는 거...♡

앗... 이봐♡

또 허리를 움직여서 도망가려고...♡

이대로 박혀서 가버릴 것 같구나, 응♡

아까 전부터 꾸욱, 안이 떨리고 있으니까, 웃. 알고 있어...♡

자, 갈까?♡ 몸을 꼬옥, 붙인 채로 나로 가는거야. 자...♡

아, 아~♡ 가고있어...♡ 꾸욱...♡

헛, 하아—... 하. 대단해, 콘돔 너머로 싹 것 같아.

아, 안, 안돼 이런 건...♡

미, 미안...♡ 아직 가고 있구나.

그런데도 갑자기 움직이면 기분 좋으면서도 두렵지...♡

미안, 손톱 세워도 좋으니까♡ 웃, 후...♡

좋아해, 정말 사랑해♡ 아. 싹 것 같아...♡

하아...♡ 하, 아...♡ 후우...♡

싫어, 안돼... 조금만 더... 진정될 때 까지, 기다, 릴거니까?

흠, 츄읍... 으응...

#5 아침, 소이치로네 집 침실.

좋은 아침.

눈, 떴어?

응... 나는 조금 전에 일어났지만. 네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후후, 네에. 깨우지 않고 보고 있었답니다.

일어나기 전에 입을 달싹이는 버릇, 어릴때부터 변하지 않았구나...

아하하. 맞—아요. 저는 아내의 자는 모습을 보는게 취미인 변태입니다—.

...변태인 건, 어제 밤에 싫을 정도로 알게 됐잖아.

아, 얼굴 빨개졌다.

기억하니까 부끄러워 진 거야? 정말 귀엽다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어? 무리하게 해 버린 것 같으니까.

흉터가 생긴진 않았지만, 허리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없어? 다행이네...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아침 만들 테니까.

뭐로 할까. 배도 고프고, 밥 지으면서 이것저것 구운 요리로 할까.

응... 그러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 더...

...꼬옥 안아도 될까?

하—... 따뜻하네...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게 좋네.

네가 내 곁에 있다는게... 제대로 느껴지거든.

...그런데, 여름 동안에는 그다지 붙어있지 않았잖아.

혹시 더워서 그래? 그래서 피한 거야?

역시 그것 때문인가... 겨울에는 먼저 품에 안겨오니까...

아—아. 이 집을 리모델링 해서 온도 설계를 전관 냉방으로 해 버릴까.

네가 그렇게 말 한다면, 여름에도 차갑게 만들어 버릴까 싶어.

응? 으응... 무슨 일 있어? 얼굴에 뭐라도 붙었나?

아... 흰머리?

염색이 덜 됐나...

응.

실은, 조금 전부터 흰머리가 슬슬 나기 시작해서 염색을 하고 있었어.

그야, 네가 늘 나를 멋있다고 해 주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 줘야지.

...언제나 너한테는, 멋있게만 보이고 싶어.

진심으로 말 하는거야? 흰머리가 있어도 괜찮으려나.

그래도 안돼. 나한테 너무 관대하게 굴지 마.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염색할 테니까.

뽀아주려고?

뽀아보고 싶구나. 뭔가 목소리가 기대감으로 가득하네.

너는 가끔 희한한 것들에 흥미를 가지더라.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우왓.

작다고 말했어.

아, 알고 있긴 하지만 조금 놀랐네.....

뽑았어?

아... 잠깐, 자세히 보지 마. 뭔가 부끄러우니까.

더러우니까 버려. 자, 쓰레기통 여기.

바보같은 소리 말고. 대체 그걸 보관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놔주면 다시 자랄건데.

응... 후후. 아직 안 난 부분, 찾고 있어?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겠네... 후후.

없었어?

그렇구나. 안타깝네. 안타까운 건가?

그래도, 내가 흰머리가 나면 이젠 네가 찾아서 뽑아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표현하긴 조금 어렵지만. 뭔가 무척 기뻐.

내가 먼저 나이를 먹는 것도, 바뀌서 생각하니 조금은 나쁘지 않을지도.

...있잖아.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하거든.

내가 네 평범한 행복을 빼앗아 간 게 아닐까, 하고.

연상인데다가, 피는 안 통했어도 삼촌이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이란 거, 전혀 평범하지 않잖아.

그 사실이 언젠가 돌고 돌아서 너를 괴롭게 만들지도 몰라...

그래도 있지.

너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눈을 뜰 때 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게 된 거 있지.

너의 평범한 행복을 빼앗은게... 다행,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와 결혼해 줘서 고마워.

전력으로, 모든 걸 바쳐서라도 평생 행복하게 해 줄게.

조, 조금 비열하게 들러려나.

하지만 진심이니까, 응.

내 얼굴, 뜨거워졌어? 어쩔 수 없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들키는구나.

네 시원한 손으로 식혀주지 않을래?

후후...

있지, 오늘 어디 갈까? 확실히—...